

영국, 2030·2035 무공해차 전환 목표 유지· ZEV 의무제 재검토

해당국가	영국	기관(기업)	영국 교통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- 영국 정부는 2030년 휘발유·경유 신차 판매 종료와 2035년 승용·승합 신차 100% 무공해 전환 목표를 유지하면서 제조사별 연간 무공해차(ZEV) 판매목표와 이행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
 - 공급망 차질과 관세·무역 불확실성 등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조사에 적용되는 연도별 ZEV 판매목표와 이행 유연성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과 무공해차 전환을 병행
 - 현행 ZEV 의무제는 2026년 승용차 33%·승합차 24%에서 2030년 각각 80%·70%까지 판매비율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이번 검토에서 목표 조정 여부를 검토
 - 제조사·부품업체·충전사업자·판매점·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도별 판매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2029년 종료 예정인 이행 유연성의 연장 여부 등을 검토
 -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2030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종료와 2035년 신차 100% 무공해 전환이라는 장기 목표는 유지하여 자동차산업의 투자방향과 정책 일관성을 지속
 - 2026년 7월 신차시장은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신차 판매의 4대 중 1대 이상이 전기차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등록대수도 200만 대를 상회
 - 정부는 기존 ZEV 의무제의 이행성과를 점검하면서 시장여건과 소비자 선택, 투자·고용 등을 고려해 산업 경쟁력과 무공해차 전환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조정을 검토
- 전기차 시장·제조·구매·충전 인프라에 총 75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을 병행하여 ZEV 의무제와 수요·공급 지원정책을 연계한 무공해차 전환 기반을 강화
 - 전기차 제조기반 확충과 차량 구매·충전 인프라 지원을 병행하여 자동차산업의 생산 전환과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확대를 동시에 지원
 - 정부는 전기차 시장 확대와 제조·판매·충전망 구축에 총 75억 파운드를 투자하며 이 가운데 40억 파운드를 DRIVE35에 투입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제조·공급망 전환을 지원
 - 승용·승합·화물차 보조금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에 35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최대 3,750파운드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16만 명 이상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
 - 공공·가정·직장 충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전기차 이용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보급 확대에 대응한 충전 기반을 강화
 - 기존 공공 충전기 약 12만 기와 가정·직장 충전기 100만 기 이상을 기반으로 추가 6억 파운드를 투자하고, 기존 4억 파운드 사업을 통해 공공 충전기 10만 기 이상을 추가 구축
 - 집주인·아파트 소유자·세입자의 가정용 충전기 설치에 최대 500파운드를 지원하고 가정 충전 이용자의 연간 운행비를 최대 약 1,400파운드 절감할 수 있도록 전기차 이용여건을 개선



※ 출처 : 영국 교통부(2026.08.14), Review launched to shape pathway to reach zero emission driving by 2035